

양국 불교이해 디딤돌 역할

한·일 양국불교 이해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총재 월주)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양국 불교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 사단법인 구성으로 조직을 강화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홍다·이하 협의회)는 지난 20년간 다져온 우의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문화교류를 지향해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협의회는 그간 진행해 온 학술발표 형식의 주제 발표를 유지하며 양국 불교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해 영상제작 음악교류와 일본내 한국불교 문화제 발굴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양국은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19차 대회에서 한국 영화산재 보존회와 불교예술단의 공연을 개최기로 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 20년 '성과와 과제'

日 산재 불교문화제 발굴 공동추진 계획 역사왜곡 대처 '소극적' ... '관광교류' 지적도

특히 협의회는 일본에 산재된 한국불교문화제의 발굴 사업과 관련한 계획에 상당한 역할을 토크했다. 협의회 사무총장 도각스님은 "우선 일본 사찰과 각 종단의 협조를 받아 일본 전국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실태를 파악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실태파악을 토대로 양국불교계의 협의에 따라 반환 가능한 문화재는 반환을 받는다는 것이 협의의 방침이다. 또 반환이 어려운 문화재에 대해서는 촬영, 탁본과 실측후 모조품을 제작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7월 10일 14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고대 한일 불교의 교류'를 주제로 첫 대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협의회는 그간 18차례 걸친 회의를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했다. 그간의 대회는 고대 양국불교의 교류사상 불교미술, 신행, 학술, 문화, 21세기를 위한 과제 등 폭넓은 주제로 진행돼 왔다. 20년간 지속된 대회는 학술교류와 아울러 개회국의 성지와 사찰, 문화유적 탐방 등을 실시함으로써 양국 불교에 대한 이해증진의 계기가

됐다. 접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협의회를 통한 양국간 교류를 바탕으로 지난 95년 한중일 삼국의 불교우호 교류회의를 발족시킨 점은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20년간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위안부문제' 등 현실적인 한일관계 규명 등에 대한 사안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등 현실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양국을 상호 방문하는 '관광교류'라는 지적도 받았다. 따라서 협의회는 양국간의 과거사를 비롯한 역사적 화해와 문화유산의 실태파악과 반환 문제등의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주년 기념 및 사단법인 인가 기념법회'가 11월 25일 오후 5시 서울 하림각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총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사장 홍다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등 임원 및 회원과 김용문 문체부 종무실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 국민회의 박찬주 의장, 이각법 청와대정책수석 등 정관계인사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다카하시 류텐(高橋隆天)고문, 다니젠소(谷玄昭)이사장, 예즈레도시노리(建後俊郎)부회장은 일본측 임원5명도 참석, 협의회 설립 20주년을 축하했다.

임연태 기자

자정을 위해 내부의 진통을 겪고 있는 군승단. 어느 때보다도 화합이 필요한 시기다. 25일 총회에서 제24대 군승단장에 선출된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이희용 주지법사로부터 군승단의 앞날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제24대 군승단장 이희용 법사

수요 인터뷰

"내부개혁-화합 둘다 슬기롭게"

해 현재 우리 단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임무가 주어져 좀더 생각해야겠지만 다음주 내로 빨리 집행부를 구성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우선 군승단의 화합을 위한 일이면 어떠한 것이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군법사들이 한데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 선·후배법사들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

서 결정된 사항은 충분히 반영할 생각입니다. -군법사들이 인사 진급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어느 조직이나 인사와 승진 문제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가장 많은 것이기도 하죠. 저도 일단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법사들의 충고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군승단이 진급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엄격히 추천하겠습니다.

-내년이면 군승단도 창립30주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 있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벌써 세 번 변한 셈인데요. 군승단 30년사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할 생각입니다. 또 후배 법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져 그들의 충고와 충고를 여과 없이 수용해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입니다. 힘찬 비상을 위해 얼마남지 않은 군법사 생활 동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김주일 기자

"사찰운영 폐쇄성 극복하자"

사실사암연 '불교발전...' 세미나서 제기

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실 사암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사실사암연(회장 총후)이 11월26일 개최한 '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실사암의 바람직한 역할' 정책세미나는 조계종내 사찰의 절반이 월인 넘는 1천1백31개의 사실사암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세미나에서 연희영교수(동국대 법학)는 "사실사암이 안고 있는 사찰운영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사찰은 개인의 극복을 위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라 문화활동과 사회복지를 위한 개방의 열려진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희영 교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찰 운영을 위해 신도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설치, 사암을 전

법 문화 교육 복지 등 전문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사실사암과 종단의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선일스님(인천부루나 포교원장)은 사실사암이 종단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종단이 사실사암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지적했다. 선일스님은 먼저 사실사암의 역할과 관련 "사실사암의 신도를 종단에 등록해야 하고 본담당의 자발적인 납부도 연합회나 유동해야 하며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등록업무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님은 사실사암에 대한 종단의 역할로 사실사암 금융지원기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행정서비스의 범위 확대, 지역사암연합회에 종회의원을 배정한 등주행정 참여, 상호 정보교환 등을 꼽았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교류의 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열린 20주년 기념 및 사단법인인가 기념법회. (사진=고영배 기자)

우리는 바람 끝에 서야만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감지력이 둔한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기해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고, 국민들도 허리를 잘라 매치고 나서고 있다. 좀더 일찍 서둘렀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남은 과제는 국난으로 자라난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기상황이 '자업자득'임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겸허하게 찾아야 한다.

목어

"화살을 뽑자"

"문민정부의 경제대책은 인기정책, 친재벌정책, 지적 내세우기 무대적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가슴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발등의 불'인 대기업의 감원, 재벌들의 자금줄이 모으기, 중소기업 자금난 등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부동산투기, 금융사기, 주가조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골빈사람들의 사치와 낭비도 규제해야 한다. 대신후보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들여다 보고 회생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누굴 탓하고

합들은 선거운동은 약발이 서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그간의 사치와 과소비를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18 아끼기'에 동참하자. 들뜨거나 캠페인에 밀려서 가 아니라 중심이 서있는 본래의 자리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때다. 우리가 국가부채 1천억달러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검절약해야 한다던 그건 좁은 생각이다. 잘살건 못살건 근검절약은 삶의 기본 자세다. 보리고계 넘기고 밥술이나 먹게되면 해의여행 다니게 됐다고 흥청망청한 결과가 '오늘'이라

면 우리는 이 아픔을 국민정신개혁의 교훈으로 삼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의왕(영라대왕)이 알고 그대들을 운화에 헤매이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게으름은 때와 같은것, 때는 게으름으로 인해 생긴다. 애써 땀아 얻은 지혜로써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으라"(순타리 파타)의 부처님 말씀은 오늘 우리국민에게 더 없는 묘약이다.

'97 문화유산의 해

12월 테마여행 - 제주도 법화사지 외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

제주도에 부처님 제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려대장경)법주기에는 석가모니 16제자 중 발타라존자가 탐라(제주도)에 불도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라산 서쪽 기슭 존자암지가 그 초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또 하나의 한국불교 초전지 제주도에서 대담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찰은 없지만 제주도는 '절 500 당 500'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사찰이 많았던 곳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인 관음사를 비롯

'불교문화 테마여행'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법화사지, 국내 최대의 법당이 있는 약현사, 제주 유형문화재 제1호 5층석탑으로 유명한 불탑사 등의 사찰과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제주 불교의 맥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 안내

- 출발: 12월 13일(토) 오후 1시 · 김포공항
- 장소: 법화사지·관음사·약현사·불탑사·목석원·한림공원·산방산·수목원·용두암 등
- 회비: 135,000원
- 안내: 강창화(제주대 강사)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문화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약약품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입후보자와 국민에게 드립니다.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냉혹한 국제 현실과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진, 그리고 세기적인 변화의 시대 속에서 민족의 생존권과 미래를 이끌어 갈 국정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감정 등 제반 갈등 요소를 해소하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몇가지 사항을 집약하여 입후보자와 국민들에게 천명하고자 합니다.

1. 경제유착과 부정부패, 정책대결의 부재에서의 인신공격과 폭로, 지역감정 자극 등은 우리의 낡은 정치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낡은 정치문화들은 사회적으로 부정부패와 도덕적 불감증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스스로 도덕적 귀감을 보이려는 노력뿐 아니라 낡은 정치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주가의 급락, 달러환율의 급등,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연쇄도산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우리 경제상황은 가히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정의와 사회복지 실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도 각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근검절약하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3. 남북상호간의 교류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길은 50년이상 지속되어온 이념적 대립과 대치상태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체제와 각종 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부동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교류의 기본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자간의 교류는 물론 민간단체들의 교류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상의 지원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 나아가 남북간의 대결과 대화가 병행되는 현상상을 인식하여 국토방위와 안보를 굳건히 다지면서 민족의 비이념적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4. 청소년 선도와 국민도덕성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자주 바뀌는 교육제도와 천문학적인 입시과외 비용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교육정책에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경쟁의 시대인 만큼 우리 민족문화를 올바르게 보존·계승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입니다. 우리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불국사 석굴암, 종묘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유형, 무형의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문화정체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인 있다면 우리의 문화경쟁력은 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앞설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부문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민족문화를 보호 육성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우리 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6.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한 개발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수려한 자연 환경의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나 물고기조차 살아가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환경문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보존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일부 종교인들이 선거에서 종교의 권위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보다는 이에 편승함으로써 종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입후보

를 당선시키기 위한 종교인의 행동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종교는 진리와 높은 도덕성으로 세속 정치에서 나타나는 잘못을 계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양생적으로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삼가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과정을 감시하고 국민들을 계도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 국민들 또한 과거의 선거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투표행태로 인하여 공명선거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시켜 왔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면·혈연·학연 등의 연고주의에 기초한 투표와 더불어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에 따른 투표권의 포기 또한 유권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유권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는 한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키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치거나 당국적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이 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간의 정책과 그 정책의 수행능력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정직성·도덕성·경력 또한 소상히 파악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층 상승시키고 국민통합과 민족통일을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불기 2541년 (1997)년 11월 2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송월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